

“36년恨 南·北·日 함께 풀어야죠”

‘한일 과거청산 운동본부’ 산파-재일본 한불련 회장 태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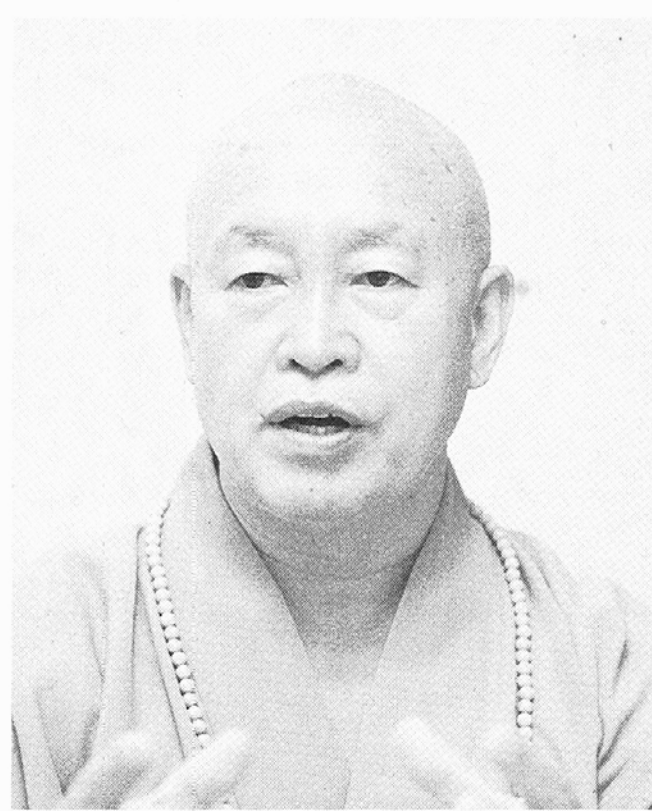
다시 8.15를 맞는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조국은 여전히 철조망으로 허리 잘린 불구이며, 일제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다.

30여년전 일본에 건너가 화생동포 위령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일 과거청산 일본본부’를 결성해 활동할 태연스님을 만나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가 남긴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불교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들었다.

아니라 가능성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익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병렬한 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께서서는 30여년전에 일본에 건너가셨는데 지금까지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갈 때가 28년 전, 그러니까 1968년 2월이었어요. 한일불교문화교류방문단으로 간 것이죠. 그때 2차대전 희생자 유골 2300위가 후생성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30만에 이르는 유골이 일본 각지에



수요 인터뷰

-지난달 26일 결성된 ‘한일과거청산 국민운동본부’의 산파역을 맡으셨는데,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일본까지 30만 유골 방치
▲여러 어른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결성대회가 원만하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학술세미나와 자료전시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은

방치돼 있으며, 후생성에 보관된 유골은 오히려 향복한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가 끓고 가슴이 뛰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 분들을 편히 잠들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나 알뜰한 승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동경민단부인회장 한정매씨가 집까지 내놓으셔서 협조해주어 오사

30년전渡日 위령사업 전개...남북 합동 천도재 주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해 통일초석 다졌으면”

물론 인류사회에 인륜을 파괴한 행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도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의 역할이 클텐데요.

▲재일본 한국불교도총연합회와 조총련계의 조선불교도협회 그리고 일본불교협회와 공동사업본부를 설치, 일본내에서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인류적 차원의 평화운동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차대전 희생자 위령사업에 일본인들이 동참하는 등 일본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개인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죄책감을 나타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입각해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체분위기를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래 달마(현 보현사)와 고려사를 창건하고 위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 어언 30년 가까운 세월을 일본땅에서 지내게 되었군요.

-남북 그리고 재일본 불교도들이 위령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유골이 수습되어도 어디에 안치하느냐 문제로 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묻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모국으로 돌아가길 소망하여 외칠 것 같습니다. 고인들의 사무친 소리를 우리 민족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 위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운동본부에서 남북에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해방 50년, 우리 민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스님의 감회는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일제 36년은 7천만 우리민족이 짙았던 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치우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화두를 풀기 위한 실사속고(實事求古)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한일과거청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쿄 남북불교회의 주도

▲무엇보다도 불교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간의 세다툼이 되어선 안됩니다. 모든 차별의식을 버리고 화합해야 이뤄낼 수 있는 민족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도쿄회의도 스님께서 준비했습니다. 불교인의 통일의를 서로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쿄회의는 한불연과 조불협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한국과 북한 일본의 불교 대표들을 모시고 위령자를 봉행하고 남북불교회의를 거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한국정부의 접촉불허로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불교대표가 일본의 중심사찰인 증심사에서 광복50주년 기념 위령재를 합동으로 봉행했음은 무엇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보여준 일입니다. 공동선언문은 그것으로써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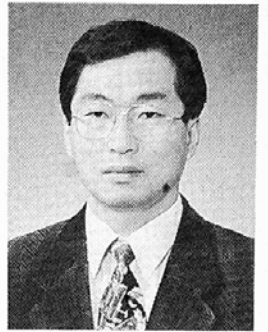
-불교계의 통일운동과 관련, 남북불교가 만나는 것 못지않게 서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한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재작년에 주일총영사관에서 나에게 한불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불교교류의 기틀이 안돼 있는데 방문해도 단지 방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양했던 일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가면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또 순서입니다.

정성운 기자

나의 수행일기

강동완 (조선대 초대 교수)



무더운 여름이기는 하지만 창밖의 맑고 푸란 하늘을 바라보니 지친 하루가 상쾌해지는 것 같다. 방학이 되었지만 실재없이 환자와 씨름하여야 하는 나는 요즘 1학기 내내 강의, 진료, 연구다 하면서 쌓였던 피곤과 함께 마음의 평정이 무너진 것 같아 북적이지 않는 산사에서 조용히 머물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산사나 내가 진료하는 이곳이나 마음 정하기에 따라 번뇌치거나 부처님 자리라 할 수 있지만 쉼이 훨씬 많아지는 여름에는 사찰의 법당에서 느꼈던 환희심이 그리워진다.

돌이켜보면 나와 부처님의 인연은 1971년 3월 어느날 광주제일고등학교 1학년(한 교실)에서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후 교실은 늘 신입생들 간의 호기심으로 시끄러웠지만 불기운으로 나뉘었다.

그때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신 불교학회장 선배님들(현 전남대 철학과 이종표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 서원대 중문

최첨단의 식사법이라 할 수 있는 바루공양에서는 남긴 음식에 의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 법에 의지한 이후 세월이 많이 흘러 치과대학 불교학회장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고 가정의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발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의 인연과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포교하고, 반야심경을 송경하면서 정진법회에 열성이었던 초발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 참석도 정진도 소홀해져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진다.

다행히도 부끄럽지만 늘 환자들을 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여 인내하고 치료를 통하여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환자 스승삼아 질병없애기 전력

초발심 고교시절 생각하면 무더위도 ‘썩’

학과 조영화 교수 등)이 칠광에 임속하게 ‘無’자를 쓰고 인연법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사춘기 시절이었던 나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어 초발심을 발동하게 하였고 광주 관음사 광주불교학회 토요법회를 늘 기다리게 하였다. 그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순수하고 즐거웠던 생활불교 시절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짜증스런 여름이 되면 불법에 입문했던 그해 여름방학 순천 조계사 선암사에서 3학일간의 사일하고 환희심으로 가득했던 수련대회를 생각하면서 무더위를 이겨 보려고 한다.

무더위의 땅과 정진법회 후의 땅, 사실 땅을 흘리는 모습은 똑같다. 그러나 여름날의 땅은 우리들을 지치게 하지만 1만년, 1천해 정진하면서 흘리는 땅은 전혀 달지도 않고 새로운 생동감을 일어나게 하니 아마도 환희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철야정진 법회 후 환희심은 연꽃같은 아름다움이고 그윽한 자비심이며 함께하는 법우들간 무엇인가를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보자.

매일하듯 바루공양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생활의 식사시간에는 정신없이 먹기에 바쁘고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남긴 음식 처치에 골머리이지만



환자들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흔히 분별심이 일어나기 쉽고 잘못을 환자를 볼 때마다 평등심을 가지려 하지만 진실로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새로운 화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환자는 ‘질병에 의한 화두’와 새로운 자극을 건네주기 때문에 도처에 부처님 법문이 있음과 다르지 않으며 서로 통한다면 법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햇병아리 시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게 된다. 우리같은 의사선생들은 가르침과 진료를 통하여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환자선생은 도리어 치료비를 내면서 헌신적으로 가르치게 되니 사실 의사는 환자에게 베푸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이 더욱 많다. 이러한 때 무더위로 짜증이 나지만 환자가 나를 통하여 기쁨을 느낀다면 법당의 환희처럼 즐거울 것이다.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이 온몸 즐거운 바캉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감성시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저 즐기는 것보다 불법의 환희심으로 가득한 법당에서 정진하거나 아끼면 모처럼 직장이나 집에서 초발심으로 가득한 보시법회를 열어 더 오손도손 지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보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인쇄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재홍보
- 인내
- 각종행사
- 신상조사계통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주지 임명 공고

현수(실명 최동기)스님을 1995년 7월 21일 부로 탄허불교문화재단 직할사찰 자경사 주지로 추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5. 8. 8

재일본 탄허 불교 문화 재단 이사장 전정철 공고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강 화합장

구직 광고

사찰운전기사·男

“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연락처 042) 252-5422

한민족 정통 신선도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절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도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마포 점자 도서관

지회 마포점자도서관은 1990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녹음)도서 대출, 점역 출판, 중도실명자 점자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실의 개선에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함께 하실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금 동창 안내(월 후원금 3,000원 이상)
-총서기업은행 279-007914-01-017
(시)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상업은행 113-05-176427
(시)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사)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마포점자도서관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51-1 TEL: (02)338-0180 / FAX: (02)337-7251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법하

사찰명: 벽수암 소재지: 경남 거제시 거계면 내간리 607-3 전 화: 33-4204 성 명: 박관평 (성종)

본사찰은 귀종단의 중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1995. 7. .

벽수암 성종 합장

관음손

어린아이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선법잡화·영구 영가 주문제작 비디오·카드·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첫술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첫술

좌우로만 첫술잡히세요 상하 또는 돌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종합예약센터 096-01-239051(서울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휴게소·가든 매대분 ※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매도가 5억원
- 신축 모델 부지 1,000평
-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선)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불교신자·독자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총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요지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굵 50명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35평형 " 1층 방 3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원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중증 요사채 및 산간가 중증 계회
- 신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님, 독지가, 세사실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